

### 3 |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습니다.

4차 규제자유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구분	주요 규제특례	
그린 뉴딜형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도 발전사업자가 되어,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특구사업자에게도 재활용하도록 허용
디지털 뉴딜형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통신시설 구축 비용 완화*, 5세대(5G) 고도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출력 및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  * 규제 완화 시, 통신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인해 필요한 송·수신기 개수 감소(1/2 수준)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하고, 운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도록 허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로 앞장선다

[자세히 보기](#)